

영어캠프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수업운영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연구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NESTs' and NNESTs' Class Management in English Conversation Classes of an English Camp

방준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Jyun Bang(lingua1969@naver.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가 함께 진행한 영어캠프에서의 수업과 수업운영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차이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 대학교 캠프에 참가한 남녀 대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캠프 만족도, 두 교수들에 대한 일반적 교수 자질, 수업 운영, 수업 내용 등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가 진행한 캠프 수업과 수업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캠프에 참가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가 함께 수업한 캠프에 대해 만족하였지만,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의 교수자질, 수업 운영, 수업 내용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학생들은 원어민 교수들이 수업을 흥미롭게 진행했다고 인식한 반면에 비원어민 교수들은 체계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원어민 교수들이 즉흥적으로 수업을 진행한 반면에 비원어민 교수들은 교재에 의존하며 더 많은 부교재를 제공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비원어민 교수들이 원어민 교수에 비해 스피킹과 문법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과제, 시험,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였고,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의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교육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대학교육 | 원어민영어교수 | 비원어민영어교수 | 대학생인식 | 영어캠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plor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NEST(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and NNEST(Non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who taught in an English camp of A university. 172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English camp during the vacation were aske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including the satisfaction with the camp, NESTs' and NNESTs' general teaching qualifications, class management, and teaching contents.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arson's Chi-square test and Fisher exact test. The research found that students were satisfied with NESTs' and NNESTs' classes in the camp. The students recognized that NESTs offered interesting classes while NNESTs prepared and taught the classes well. They also pointed out that NESTs instantly managed classes while NNESTs tended to rely on textbooks and offered more materials in classes. They realized that NNESTs focused more on English speaking, gave students more feedbacks about students' outcomes, and communicated with students more effectively. The paper provides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more effective NESTs' and NNESTs' teaching.

■ keyword : | High Education | 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 Non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 English Camp |

I. 서론

한국 정부는 세계화와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영어교육에 있어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1995년 이래 한국 정부는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영어 사용에 능통한 다수의 원어민 교사들을 초청하였다. 이에 부합하여 대다수 대학들도 원어민 교수를 채용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노력해 왔다. 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 많은 대학들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를 활용하여 교양영어 수업이나 캠프와 같은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영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많은 연구들에서 두 교수 중 어느 교수가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더 효율적인지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연구들은 두 교수들 중에서 한 교수가 다른 교수보다 우수한 것 보다는 두 교수 모두가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분야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두 교수들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지적하였다[1-5]. 예를 들어 원어민 교수들은 능숙한 언어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에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한[1] 반면에 비원어민 교수들은 영어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 영어 표현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과 교육적 매체로서 영어표현에 있어 인지적 어려움들이 있다[2][3].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대학들은 두 교수의 팀티칭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많은 연구들[6-8]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팀티칭에 대해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동시에, 이 연구들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의 좀 더 효과적인 팀티칭을 위해 두 교수 상호간의 협력 증진 등의 많은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이 진행한 대학 교양영어 강좌의 팀티칭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나 만족도 연구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 중 단기간 영어캠프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이 독립적인 수업을 시도해 보고, 그

수업이나 수업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기 영어캠프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가 협력하여 수업을 실시한 후, 두 교수가 참여한 캠프와 수업운영방식에 관한 캠프 참여 학생들의 인식 차이에 대해 탐구해 보는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들은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영어캠프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이 함께 진행한 캠프수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2. 영어캠프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일반적인 자질, 수업 방법, 수업 내용, 평가 및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1.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에 관한 학생 인식 연구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 중 어느 교수가 영어 교수로서 나아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학습자의 요구나 학습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은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 교수로서의 고유한 자질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수의 연구들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 중 어느 교수도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교수에 비해서 우월하지 않고, 두 교수 모두 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9]. 먼저, 원어민 교수들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고급어휘나 정확하고 유창한 영어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들은 다양한 기법과 접근법을 통해 자유롭고 유연하고 생동감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수업에서 문화에 대한 정보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준다[10-13].

반면 비원어민 교수는 L1을 교수어로 사용하여 학습 프로세스를 촉진, 가속, 향상시키는 동시에, 학습자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 알고 그들에게 문화적 배경 공유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문법을 강조한 시험 대비 수업을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은 좋은 자료를 설계 및 선택할 수 있고, 창의적인 교수법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수 활동들을 사용하고, 학생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달성 가능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전략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능력과 메타 언어적 인식을 소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교과서에 의존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13][14].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의 각자 다른 자질을 가지고 영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두 교수의 특징이나 특색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들이 여러 상황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다. 먼저, ESL(English as Second Language) 상황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연구들 중 하나인 Moussu의 연구는 학생들이 비원어민 교수들에게 영어를 잘 배울 수 있고 존경심을 가진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 유학생들이 비원어민 교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15]. Liang은 5명의 비원어민 교수와 1명의 원어민 교수에 대한 학생 인식 연구에서 학생들이 교수들의 발화에서 액센트와 발음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비원어민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견하였다[4]. 또한, 그는 원어민이나 비원어민 교수라는 것 보다는 수업의 흥미도, 철저한 수업 준비, 자격, 전문성 등의 요인들이 학생들의 두 교수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연구 뿐만 아니라 두 교수의 언어능력, 교수 방식, 개인적인 요인들에 따른 학생들의 선호도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 졌다.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가 참여한 대학 영어집중프로그램에 등록된 32명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Mahboob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문법, 말하기 능력, 방법, 노력, 어휘, 질문에 답하는 능력, 읽고 쓰는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지만, 일부 학생들은 비원어민 교수의 영어권 문화에 대한 정보 제공과 말하기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5]. Lasagabaster와 Sierra는 비원어민 교수가 가르친 76명의 대학생들을 영어전공자와 다른 언어전공자, 원어민 교수의 수업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으로 구분하여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에 대한 학생 선호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특히 영어전공 학생들은 원어민 교수들을 더 선호하였지만, 가르치는 분야에 따라 두 교수에 대한 선호도는 다르게 나타내었다. 즉, 학생들은 발음, 말하기, 어휘 분야에서는 원어민 교수를 선호하는 반면에 문법이나 학습 전략 분야에서는 비원어민 교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16].

또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의 언어능력, 교수방법, 개인적 요인들, 정서적 능력 등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에 대한 연구들이 홍콩[17]과 한국[18][19] 등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루어져 왔다. Ma는 원어민 교수들이 언어적인 강점과 교육적인 약점을 가진 반면에 비원어민 교수들은 교육적인 강점과 언어적인 약점을 가졌다고 보고하였다[17]. 그는 원어민 교수들이 정확한 발음과 영어에 대한 지식을 가졌지만, 비원어민 교수들은 목표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중 하나인 Park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원어민 교수에 비해 비원어민 교수를 선호한 반면에 발음, 문화, 의사소통과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원어민 교수를 선호하였다[18]. Yang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일반 영역, 언어능력, 교수 영역, 정서적 영역, 교수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회화 능력에 관련된 능력에서는 원어민 교수를 선호하였지만, 정서적인 측면과 수업효율성 개선에 관련된 면에서는 비원어민 교수를 선호하였다고 밝혔다[19].

이 연구들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 졌지만 연구 결과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출신 배경에 따라 어느 교수의 수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두 교수 각각의 특성에 따라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 학생들은 언어적 유창성이나 출생 배경뿐만 아니라 언어적 민감성, 교수방식, 개인적인 요인, 영어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자질에 의하여 원어민과 비원어

민 교수들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즉, 학생들은 언어적이나 문화적 면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원어민 교수를 선호하였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서적인 영역 등에서는 비원어민 교수를 선호하였다.

2.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 팀티칭에 대한 연구

앞선 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어민 교수와 비원어민 교수들은 특유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독립적인 교수행위를 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여 가르치는 것이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가 협력하여 가르치면 두 교수 사이에서 서로 보완해주는 좋은 균형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20].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내 대학들은 교양이나 특별 프로그램에서 두 교수를 동시에 수업에 참여시키는 팀티칭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6-8]은 대학 교양영어나 특별프로그램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의 팀티칭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태도나 역량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김미영은 교양영어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팀티칭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원어민 교수의 수업 방식에 만족한 반면, 비원어민 교수의 교수-학습자 상호작용에 만족하였다고 보고하였다[6]. 그녀는 좀 더 효율적인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의 팀티칭을 위해 두 교수의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임남실의 교양 수업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팀티칭이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원어민 교수 수업이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자극을 주어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하였으며, 소통적인 면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도와주었다고 하였다[7]. 또한 그녀는 학생들이 원어민 교수와 말하기, 발음, 듣기 중심의 수업을 같이 하고 싶어 하였지만, 비원어민 교수와는 문법과 독해학습을 같이 하고 싶다는 것을 밝혔다.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팀티칭에 대한 상·하위권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Choi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원어민 교수들이 말하기와 듣기를 잘 가르치고 좋은 영어 사용자의 모델이라고 인식하였

고, 비원어민 교수는 문법, 읽기, 어휘 등을 잘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21]. 또한 그녀는 상위권 학생들이 원어민과의 수업을 더 많이 선호한 반면에 하위권 학생들은 비원어민 교수들의 친밀성에서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팀티칭에 대한 연구는 교양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 후 학생들의 인식이나 만족도에 대해서도 진행되었다. Klemesen과 Seong의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 수업에 대한 대학교 토익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 연구에서 토익 수업 후 학생들의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에 대한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원어민교수에 비해서 영문법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한 비원어민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토익 점수가 더 많이 상승했다고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들은 교수 능력은 교수의 언어와 관계없이 교수 개인의 자질과 수업 방식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8].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팀티칭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가 팀을 이루어 가르치는 수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원어민 또는 비원어민 교수라는 것보다는 교수로서 수업 방식이나 전문성에 따른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들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의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두 교수의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정규교과 과정에서의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의 팀티칭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영어캠프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독립적인 팀티칭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가 단기 영어캠프에서 독립적인 팀티칭 수업을 진행한 후 그들의 수업 운영에 대한 학생 인식 차이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에 위치한 A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실용 영어능력을 향상시켜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총 110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된 영어캠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영어캠프에 참여한 수강생 184명 중 과정을 수료한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캠프 참가자들은 효율적인 캠프 운영을 위해서 사전 레벨 테스트를 거쳐 초급반 2개, 중급반 1개, 고급반 1개로 나누어져 캠프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 대학생들의 성별, 학년, 전공 및 분반 별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명	%
전체		172	100
성별	남	80	46.5
	여	92	53.4
학년	1학년	35	20.3
	2학년	35	20.3
	3학년	52	30.2
	4학년	50	29.0
전공	인문계	81	47.0
	이공계	40	23.3
	상경계	51	29.6
분반	초급(1)	42	24.4
	초급(2)	42	24.4
	중급	44	25.5
	고급	44	25.5

2. 연구 진행 및 자료 분석 방법

4명의 원어민 교수와 4명의 비원어민 교수가 영어캠프에 참가하였다. 이 교수자들의 국적, 학위, 교육경력, 해외 유학 기간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2. 교수자 정보

	성명 (익명)	국적	나이	성별	전공/학위	교육경력 (해외유학)
원어민 교수	A	미국	57	남	문학/석사	13년
	B	미국	35	여	홍보/석사	10년
	C	영국	39	남	경영/석사	9년
	D	캐나다	32	여	영어/석사	5년
비원어민 교수	김	한국	46	여	영어/박사	10년(8년)
	이	한국	45	여	영어/박사	10년(8년)
	박	한국	38	여	영어/석사	5년(2년)
	최	한국	48	남	영어/박사	8년(7년)

영어캠프의 목적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과의 집중적인 영어 말하기 훈련 수업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었다. 이 목적을 위해 ‘Vocabulary to speaking’, ‘Listening to speaking’, ‘Reading to writing’, ‘Movie English’, ‘Speaking in public’, ‘Job interview’, ‘Business English’ 등을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이 과목을 단원별로 나누어서 가르쳤다. 모든 과목은 10차시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1, 3, 5, 7, 9차시는 비원어민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고, 2, 4, 6, 8, 10차시는 원어민 교수가 독립적으로 교차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각 단원마다 학생들은 비원어민교수와 어휘, 문법 등에 대한 영어 말하기의 기본적인 사항을 훈련한 후, 원어민 교수들과는 각 단원의 주요 주제나 독해 내용을 가지고 자유 토론이나 발표 수업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Benke와 Medgyes의 연구[10]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연구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국어로 번역·수정하여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연구 참여자의 캠프 수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만족도(6문항)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캠프 수업 진행 및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수업 진행 및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교수의 일반적인 교수 자질(9문항), 수업 진행 방법(8 문항), 수업 내용(9 문항) 및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에 의해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로 이루어 졌다. 설문지에 사용된 문항들에 대해 Cronbach’ Alpha값의 산출을 위한 신뢰도 검사 결과 0.84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의 계수 값이 나왔다.

설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을 이용하였다. 캠프 수료 학생들의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이 독립적으로 교차하여 진행한 캠프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조사를 하였다. 또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의 일반적인 교수 자질과 수업진행에 대한 캠프 참여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여 유의한지를 알아

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특히, Pearson의 카이제곱과 기대 빈도가 5미만인 항목이 20%를 넘길 때는 정확한 검정을 실시하기 위해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사용하여 두 그룹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신뢰수준은 99%이하로 검증하였다.

IV. 발견점

1. 캠프에 대한 만족도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이 함께 3주간 진행한 영어 캠프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캠프 참가 대학생들에게 전반적인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캠프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영어캠프에 대한 만족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캠프에 대한 만족도

문항	MEAN	SD
교육 내용	4.30	0.55
수준별반 편성	4.13	0.84
교육 과정/내용	4.11	0.78
교재 내용/구성	4.11	0.81
평가 내용/결과	4.19	0.80
수업 체계성	4.28	0.69

학생들이 느끼는 프로그램의 수업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캠프 만족도의 하위 문항 6개에 대한 평균이 4.18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가 독립적으로 교차 진행한 캠프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교육내용(M=4.30, SD=0.55)과 수업체계성(M=4.28, SD=0.69)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보다는 조금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지만 비교적 만족한 분야로서는 평가 내용 결과(M=4.19, SD=0.80), 수준별 반 편성(M=4.13, SD=0.84), 교육과정 및 내용(M=4.11, SD=0.78), 교재 내용 및 구성(M=4.11, SD=0.81) 순으로 학생들이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2.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수업에 대한 인식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이 수업 방식에 대한 캠프 참가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두 교수의 일반적인 교수 자질, 수업 진행에 대한 만족도, 수업 내용 및 개인적인 요인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2.1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일반적인 자질에 대한 인식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일반적인 수업진행 자질들(수업 준비, 강의방법, 강의 전문성 등)에 대해 설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4. 일반적인 자질에 대한 인식

문항	통계량	값	유의확률
수업 준비	Pearson	56.782	.000*
수업 계획	Pearson	17.498	.000*
강의법	Pearson	8.457	.015
강의 효과성	Fisher	13.611	.003*
강의 전달력	Pearson	7.218	.027
강의 열정	Pearson	41.714	.000*
전문성	Pearson	10.363	.011
수업 흥미	Fisher	23.132	.000*
학습 자료	Fisher	27.491	.000*

*p<.01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수업준비에 대한 만족도 차이 검정 결과를 보면 Pearson 카이제곱이 56.782, 유의확률이 0.000이고, 수업계획에 대한 응답 결과는 Pearson 카이제곱이 17.498,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원어민 교수와 비원어민 교수의 수업 준비나 계획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비원어민 교수(만족:준비=53.5%, 계획=48.8%)들이 원어민 교수(만족:준비=29.5%, 계획=30.2%)들에 비해 수업 준비를 잘하였고 수업을 계획대로 잘 진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강의 열정에 대한 차이 검정 결과에서는 Pearson 카이제곱이 41.714, 유의확률이 0.000이고, 강의의 효과성에 대한 차이 검정 결과는

Fisher 검정값이 13.611, 유의확률이 0.003 이므로, 학생들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수업에 대한 열정과 강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생들은 원어민교수의 열정과 강의 효과성(만족:열정=43.2%, 강의 효과성=33.3%)보다는 비원어민 교수의 열정과 강의 효과성(만족:열정=74.4%, 강의 효과성=52.4%)에 더 만족을 하였다.

어느 교수가 수업을 더 흥미롭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Fisher의 정확한 검정값이 23.132, 유의확률이 0.000으로 비원어민 교수와 원어민 교수의 수업 흥미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원어민 교수(만족=58.1%)가 비원어민 교수(만족=35.7%)에 비해 좀 더 수업을 흥미롭게 진행했다고 인식하였다.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강의법에 대한 만족도 차이 검정 결과에서는 Pearson 카이제곱이 8.457, 유의확률이 0.015,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강의 내용 전달력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Pearson 카이제곱이 7.218, 유의확률이 0.027, 두 교수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Pearson 카이제곱 10.363, 유의확률은 0.011로 비원어민 교수와 원어민 교수의 강의법, 강의 내용 전달력, 전문성에 대해 학생들은 인식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2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한 인식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두 교수들의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수업진행 방법에 대한 인식

문항	통계량	값	유의확률
전통적 수업 방식	Fisher	10.075	.039
다른 방식 수업운영	Pearson	8.965	.061
수업진행 즉흥적	Pearson	47.945	.000*
혼자 수업 진행	Fisher	31.748	.000*
짝 활동	Pearson	11.246	.011
그룹 활동	Fisher	7.507	.026
교재 의존도	Fisher	38.814	.000*
부교재 사용	Fisher	12.85	.000*

* $p < .01$

수업 진행 방식의 즉흥성에 대한 Pearson 카이제곱이 47.945, 유의확률이 0.000이었고, 어느 교수가 혼자 수업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Pearson 카이제곱이 31.748, 유의확률이 0.000으로 학생들은 두 교수의 수업에 대한 즉흥성이나 혼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인식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생들은 원어민 교수(그렇다:즉흥적 수업=39.0%, 혼자 수업 진행=27.9%)들이 비원어민 교수(그렇다:즉흥적 수업=19.0%, 혼자 수업 진행=11.9%)들에 비해 즉흥적이고 혼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수업 시간 중 교재 의존 정도에 대한 문항은 Fisher의 정확한 검정값이 34.81, 유의확률이 0.000이었고, 주 교재 외에 부가적인 교재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Pearson 카이제곱이 12.85, 유의확률이 0.000으로 비원어민 교수와 원어민 교수의 교재와 부교재 의존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비원어민 교수(그렇다:교재의존=51.2%, 부교재=27.3%)가 원어민 교수(그렇다:교재의존=27.9%, 부교재=16.3%)에 비해 교재에 의존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더 많은 부교재를 제공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어느 교수가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고수하느냐는 질문에 Fisher의 정확한 검정값이 10.075, 유의확률이 0.039, 두 교수의 짝 활동에 대한 Fisher의 정확한 검정값이 11.246, 유의확률이 0.011, 그룹 활동에 대한 Pearson 카이제곱이 7.507, 유의확률이 0.026, 어느 교수가 매 수업마다 다르게 수업을 진행하는 지에 대한 Fisher의 정확한 검정값이 8.965, 유의확률이 0.061로 나타나 학생들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전통적인 방식 교수, 수업 중 활동, 다른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인식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3 수업 내용, 평가, 학생과 소통에 대한 인식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수업 내용은 어느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지, 평가 방법과 양은 어떠한지, 그리고 학생들과 소통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문 결과의 다음과 같다.

표 6. 수업내용, 평가 및 학생들과 소통

문항	통계량	값	유의확률
스피킹 초점	Pearson	40.399	.000*
문법규칙 초점	Pearson	61.91	.000*
영어권 문화 정보 제공	Fisher	3.562	.315
과제양	Pearson	27.163	.000*
시험양	Pearson	36.655	.000*
평가 적정성	Pearson	97.077	.000*
실수 교정	Fisher	92.077	.000*
소통 시 인내력	Fisher	28.923	.000*
학습자에 주의	Pearson	21.668	.000*

**p* < .01

어느 교수가 스피킹 능력에 초점을 두고 수업하는지에 대해 Pearson 카이제곱이 40.399, 유의확률이 0.000 이고, 문법규칙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대해 Pearson 카이제곱이 61.91,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수업에서 초점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비원어민 교수(그렇다: 스피킹=62.8%, 문법 규칙=43.5%)가 원어민 교수(그렇다: 스피킹=32.6%, 문법 규칙=13.6%)에 비해 스피킹이나 문법 규칙에 더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했다고 인식하였다.

과제의 양에 대해 Pearson 카이제곱이 27.163, 유의확률이 0.000이고, 수업 시간 중 치뤄지는 시험의 양에 대한 질문에는 Pearson 카이제곱이 36.655, 유의확률이 0.000으로 학생들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과제나 시험 양에 대해 인식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은 비원어민 교수(그렇다:과제=35.7%, 시험=30.2%)들이 원어민 교수(그렇다:과제=14.0%, 시험=9.8%)들에 비해 더 많은 과제를 내주었거나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교수가 학생의 언어적인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Pearson 카이제곱이 97.077, 유의확률이 0.000이고, 교수가 학생들의 언어적인 실수에 대해 교정을 해주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Pearson 카이제곱이 92.077,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평가나 피드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비원어민 교수(그렇다:피드백=56.8%, 평가=31.85)들이 원어민 교수(그렇다:피드백=28.3%, 평가=20.9%)들에 비해

더 많은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수업을 진행 시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은 어느 교수가 더 효율적으로 하였나에 대한 항목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교수가 학생들과 소통을 할 때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Fisher의 정확한 검정값이 28.923, 유의확률이 0.000이고, 교수가 학습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는지에 대해 Pearson 카이제곱이 21.668, 유의확률이 0.000으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학생들과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비원어민교수(그렇다:소통=60.5%, 인내=65.1%)들이 원어민 교수(그렇다:소통=39.5%, 인내=39.5%)들에 비해서 학생들과 소통 시 더 많은 인내력과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 중 어느 교수가 영어권 나라의 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Pearson 카이제곱이 3.562, 유의확률이 0.315이므로, 원어민 교수(그렇다=23.3%)와 비원어민 교수(그렇다=25.6%)의 문화 정보 제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는 없었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 목적은 3주간의 영어캠프를 참여한 대학생들의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가 함께 수업을 진행한 캠프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두 교수들의 수업 진행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생들이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가 같이 진행한 영어캠프와 수업을 함께 진행한 두 교수들의 일반적인 자질, 방법, 내용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질문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먼저, 캠프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이 함께 진행한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Park의 연구[18] 결과와 같이 본 연구의 참가 대학생들도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가 함께 진행한 영어캠프 수업의 전반적인 교육 내용, 교과 과정, 교수 방법, 과제 내용과 구성, 수업에 체계성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었다. 이는 두 교수들이 장점은 잘 살리고 단점들은 서로 보완하면서 영어캠프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일 수 있다.

다음으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의 일반적인 자질, 수업 방법, 수업 내용, 평가, 학생들과의 소통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았다. 먼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의 수업 진행에 대한 일반적인 자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 Liang을 비롯한 다른 연구 결과들[4][16]과 같이 비원어민 교수들이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업을 계획대로 열정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나타났다. 또한 비원어민 교수가 원어민 교수에 비해 교재에 더 의존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많은 부교재들을 제공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원어민 교수가 영어교육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수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은 학생들이 이미 구입한 교재의 진도에 대한 부담감으로 수업 시간에 교재에 더 많이 의존하여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원어민 교수들이 더 흥미롭게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업을 즉흥적으로 혼자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어민 교수들이 영어 구사력을 바탕으로 좀 더 흥미롭게 수업을 진행하였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업을 유연하게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수업 내용에 대해 Sammy와 Brutt-Griffle을 비롯한 연구들[5][11][16][19]의 결과와는 달리 본 논문의 비원어민 교수들이 원어민교수들에 비해 좀 더 스피킹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 모두 수업 시간을 통해 영어권 나라의 문화를 충분히 전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어캠프에 참가한 비원어민 교수들의 대부분이 영어권 나라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어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력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회화중심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원어민 못지않은 영어권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인 Yang의 연구[20] 결과와 같이, 본 연구의 비원어민 교수들도 원어민 교수들에 비해 더 많은 양의 과제와 시험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원어민

교수들은 원어민 교수들보다 학생들의 언어적인 실수에 대해서 더 많은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좀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평가한 경향이 있었다. 더욱이, 비원어민 교수들은 원어민 교수에 비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학생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임으로써 학생들과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원어민 교수들이 본인들도 한 때 외국어 학습자들이였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 시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더 많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학생들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였듯이 학생들은 두 교수들이 함께 진행하는 수업에 많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더 효율적인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두 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고안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두 교수들이 함께 참여한 수업에 만족한 동시에 두 교수들의 보완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은 각자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수업 내용 및 수업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두 교수의 팀티칭을 도입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인 팀티칭 방안들이 제시되는 경우가 적다. 이에 학교에서는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이 좀 더 효율적인 팀티칭의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들은 두 교수들 간의 전문적인 교수 방법이나 수업 내용에 대한 의사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상시적으로 만나 토론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영어캠프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 양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모든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가 참여한 영어 프로그램들에 일반화시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두 교수들이 함께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들의 교수방법 등에 대한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

어 질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에는 두 교수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두 교수 상호간의 인식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성애, “새천년과 한국 영어교육의 과제,” *새한 영어영문학*, 제42권, 제1호, pp.25-37, 2000.
- [2] V. Cook, “Going Beyond the Native Speaker in Language Teaching,” *TESOL Quarterly*, Vol.33, No.2, pp.185-209, 1999.
- [3] Y. Goto-Butler, “How are Non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Perceived by Young Learners?,” *TESOL Quarterly*, Vol.41, No.1, pp.731-755, 2007.
- [4] K. Lia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ESL) Students’ Perceptions of Native and Non-native Speaker Teachers of English,” *Language Awareness*, Vol.11, No.2, pp.132-142, 2002.
- [5] A. Mahboob, “Native or Nonnative: What do Students Enrolled in an Intensive English Program Think?” In Kamhi-Stein (Ed.), *Learning and Teaching from Experience: Perspectives on Nonnative English-speaking Professional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4
- [6] 김미영, “교양영어 및 팀티칭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만족도 연구,” *코기토*, 제74호, pp.105-126, 2013.
- [7] 임남실, “원어민 교수와 협력수업에서 영어학습 및 국제화 교육에 대한 제2언어 학습자들의 효율성 인식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9호, 제1호, pp.123-148, 2015.
- [8] K. M. Klemsen and M. H. Seong, “Who is More Effective in Teaching TOEIC, Korean or Native English Teacher?,”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Vol.18, No.1, pp.133-151, 2012.
- [9] P. Medgyes, “Native or Non-native: Who’s Worth More?,” *ELT Journal*, Vol.46, No.4, pp.340-349, 1992.
- [10] E. Benke and P. Medgyes, “Differences in Teaching Behavior between Native and Non-native Speaker Teacher: As Seen by the Learners,” In E. Llurda (Ed.), *Nonnative Language Teachers: Perceptions, Challenges, and Contributions to the Profession*, Springer, 2005.
- [11] K. K. Sammy and J. Brutt-Griffler, “To be a Native or Non-native Speaker: Perceptions of Non-native Students in a Graduate TESOL Program,” In G. Braine (Ed.), *Non-native Educators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Lawrence Erlbaum, 1999.
- [12] C. Tang, “The Identity of the Nonnative ESL Teacher: On the Power and Status of Nonnative ESL Teachers,” *TESOL Quarterly*, Vol.31, No.3, pp.577-580, 1997.
- [13] L. Moussou and G. Braine, “The Attitudes of ESL Students toward Nonnative English Language Teachers,” *TESL Reporter*, Vol.39, No.1, pp.33-47, 2006.
- [14] O. Tarnpolsky, “EFL Teaching and EFL Teachers in the Global Expansion of English,” *Working Papers in Educational Linguistics*, Vol.16, No.2, pp.25-42, 2000.
- [15] L. Moussu,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Students’ Reactions to Non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Master’s thesis, Brigham Young University, 2002.
- [16] D. Lasagabaster and J. M. Sierra,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Native and Non-native Speaker Teachers of English,” *Language Awareness*, Vol.11, No.2, pp.132-142, 2002.
- [17] L. P. Ma, “Strengths and Weakness of NESTs and NNESTs: Perceptions of NNESTs in Hong

Kong," Linguistics and Education, Vol.23, pp.1-15, 2012.

- [18] E. S. Park,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Preferences toward 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Modern English Education, Vol.10, No.3, pp.114-129, 2009.
- [19] T. S. Ya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bout Native and Non-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in TEE Cours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Vol.17, No.3, pp.237-254, 2011.
- [20] K. Matsuda, "Teacher Development through Native Speaker/nonnative Speaker Collaboration," TESOL Matter, Vol.9, No.5, 1999.
- [21] J. S. Choi, "High and Low English Level Students' Perceptions on Team Teaching by Native and Non-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Vol.62, pp.265-291, 2015.

저 자 소 개

방 준(Jyun Bang)

정희원



- 2011년 5월 :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인제대학교 영어학과 및 영어교육학과 강의
- 2016년 10월 :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관심분야> : 영어교육, 영어교사교육, 영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다독, 뇌과학과 영어교육, 영어영재, 영어교육연구방법